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는 상극과 견제의 논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임이다. 가위는 보를 잘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싸 이기며, 바위는 가위를 부수어 이긴다. 중국의 가위 바위 보라 할 수 있는 ‘충권(蟲券)’도 그렇다. 엄지 검지 새끼손가락을 지어 승부를 겨루는데, 개구리인 엄지는 달팽이인 새끼손가락을 이기고, 새끼손가락은 뱀인 검지를 이기며, 뱀인 검지는 개구리인 엄지를 이긴다. 충권은 술자리에서 즐기는 어른들의 놀이였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져서는 형태도 바뀌고 아이들의 놀이가 되었다.

상극 논리를 보여주는 놀이 도구의 명칭을 가위 바위 보로 정한 것은 그것들이 옛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물이었기 때문

이다. 또한 옷감 재단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가위와 단단하기만 한 바위 그리고 물건을 싸는데 이용되었던 부드러운 보자기는 각각 날카롭고 묵직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가위 바위 보 게임에는 견제와 조화의 철학이 담겨 있다. 즉 날카로운 성격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이길 수 있으나 묵직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묵직한 성격의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나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포용감을 느끼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은 묵직한 사람을 감쌀 수 있으나 날카로운 사람에게는 위기감을 느끼므로 이것을 잘 유념하여 살아가라는 처세 철학을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식인 풍습(食人風習)

1965년 9월4일,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다음은 슈바이처 박사가 자필로 쓴 비문의 내용이다.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이 좋았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는 않았어.”

식인 풍습이 있는 곳은 대개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나 작은 섬 지역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군도와 뉴질랜드의 일부 섬 지역에서 얼마전까지 식인 풍습이 존재했다고 믿어지고 있다. 작은 섬 지역에서 식인 풍습이 형성된 원인으로 대략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구 문제이다. 작은 섬 안에 인구가 점차 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섬 안에 사는 종족끼리 싸우게 된다.

이러한 싸움은 생존이 목적이므로 굶기야는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있어 식인의 풍속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대륙은 물론 큰 섬과도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의 원주민들은 격리된 교통 환경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같은 이유로 식인 풍습의 야만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랜 세월 습관처럼 풍습을 유지했던 것이다.

둘째, 슈퍼맨 지향성이다. 식인종들은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에 적을 잡아먹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 ‘좋은 먹을거리’를 찾게 되었다. 그때 돋보이는 것이 우두머리였고 우두머리를 먹음으로써 ‘그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우두머리를 먹으면 능력이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는 차츰 사람을 먹으면 그의 능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여러 인류학자들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잡아 먹은 자의 지혜와 육체의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식인종의 풍습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셋째, 중병이 걸렸을 때 약으로서의 인육이다. 사람의 생명은 곧 사람의 육신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인체의 일부

나 인혈을 먹음으로써 불치병을 치료하려 했던 것이다.

중국의 개자추가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피난길의 왕에게 고깃국을 바친 일이나 <삼국사기>에 효자 향덕(向德)이 부모의 굶주림과 불치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먹인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치료형’ 식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일부만을 희생하는 것이고, 또 야만성에 의한 식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인 풍습의 원인을 규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